

“여호와와 그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라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애가 3:22-23)

평안하신지요. 좋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멕시코에서 안부 드립니다. 모두가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5월인데, 이곳 멕시코는 아닌가 봅니다. 곳곳에서 이상기온으로 때 아닌 물난리와 무더위로..., 과거 멕시코시티에서 언어 공부를 할 때 경험한 이후, 짧은 시간이긴 했지만 다시금 두 차례의 지진 가운데, 보호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멕시코의 소식을 나눕니다.

<제자만드는 일의 기쁨>



매달 영혼구원의 소식을 나눌 수 있었으면 하는 소원이 있는데..., 아직은 그러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초대되어 목장과 교회에 나오고 카톨릭문화로 인해 침례에 특별한 부담이 있는 이들이 침례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첫발을 내딛는 일은 참으로 감사와 감격이 있는 순간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며 축하하면서 함께 동참하는 침례식은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임을 깨닫고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함을 경험케 하는 감동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침례에 순종한 호세형제와 이멜다자매는 자녀의 구원받은 후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보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목장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성경공부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면서 많은 기쁨을 경험하고 있는 부부입니다. 이들이 주님의 은혜가운데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에 동참하는 영적 리더로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들 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 형제, 자매들이 전통적인 카톨릭의 생활에 익숙해 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다보니 습관을 바꾸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스스로들 섬기는 자가 되어 교사로, 목자로 섬기면서 주중에도 모임을 가지고 맡겨진 사역들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호뭇함과 감사가 있습니다. 이제는 16명의 주일학교 교사들이 섬기고 있고, 3명의 청년 리더들이 목자로 섬기며 청소년들, 청년들과 삶을 나누고 있고, 아울러 매달 새벽기도를 통해 기도의 습관을 배워가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함께 익혀가고 있습니다.

특히 기억나는 것은 21일간의 다니엘 금식기도 기간동안 많은 역사도 있었지만, 아들과 함께 새벽기도를 나오던 호세 형제가 강도를 만난 일이 있었음에도 신실하게 기도하러 나오며 그 가



운데 감사를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아니면 설명이 될 수 없는 큰 간증이었습니다.

<넘치는 축복>



매년 창립감사예배를 드릴 때면 주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큰 감격이 있습니다. 창립감사예배를 준비하면서 모두가 초청할 영혼들을 위해 명단을 작성해서 기도했는데, 15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로 창립 8주년 기념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으로 3일간의 말씀사경회를 겸해서 창립감사예배를 드렸는데,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준비한 찬양과 청소년들의 감사찬양, 그리고 목자들의 찬양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들”이라는 고백은 예배 가운데 듣고 있는 저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것은, 스스로 창립예배를 준비하면서 성도 모두가 하나 되어 가는 한 몸을 경험해 가는 것이었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집중하는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더욱 감사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신실하게 섬겨주신 믿음의 교회와 동역자님, 고맙습니다! 점점 어려워져 가는 복음 사역을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와 물질로 함께 해 주심이 큰 힘과 격려가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기도로 함께 해 주시며 후원해 주시는 일로 마음깊이 감사드리며, 선교지에서 주님의 일하심의 기쁜 소식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1. 점점 어려워지는 치안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족과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도록
2. 하나님과 동행하며 매 순간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결정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3. 지속적인 영혼구원을 통해 제자 만드는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4. 두 곳의 인디언마을에 예배당의 필요가 있는데, 최선을 다해 세워갈 수 있도록 필요가 채워지며 도움의 손길이 있도록
5. 가정(자동차)과 사역의 필요가 채워지도록

멕시코에서 2016년, 5월에...

추기성, 정지연선교사드림